# 금강호 철새들 왜 떠났나

## 철새조망대측 "부유물 차단 펜스 때문에 자취 감춰" 주장

국내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군산 금강호의 철새들이 최근 4대강 공사과정에서 설치된 수중펜스 때문에 자취를 감췄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군산시 철새조망대와 철새보호 운동가들에 따르면 8일 오후 4대강 준설에 따른 부유물을 차단하기 위해 군산시 나포면 앞 금강호 물밑에 설치한 길이 1400m의 주황색 펜스가 갑자기 수면위로 떠올랐다.

철새조망대 측은 이 때문에 지난 11월 말부터 날아든 가창오리와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 20여만 마리가 거의 모두 자취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9일 현재 이 일대에는 철새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이 곳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모터보트가 펜스 주위를 오가면서 안정적인 휴식처를 원하는 철새들의 거주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군산시는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철새도래지로 각광받는 금강호에서 철새가 자취를 감추면서 '철새도시'의 명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철새조망대 한성우 학예사는 "금강호 수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철새들이 갑자기 물 위로 드러난 주황색 펜스에 놀라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금강호 수중에 설치한 부유물 차단용 펜스가 갑자기 위로 올라왔다는 공사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관계자는 "펜스 때문에 철새들이 떠난 것이 아니다. 생태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고창 기상대 신청사 준공** 고창기상대 청사가 지난 8일 대산면 매산리에 이전·신축돼 고창과 영광·함평 등 서해안 지역의 고품질 기상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신청사는 2만여㎡의 부지에 기상관측소(8000㎡)와 관측시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전북취재본부=조종옥기자 jong@

# "익산 유적지구 지속 복원·보존 필요"

## 道·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술회의

전북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익산 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륵사를 비롯한 문화역사지구가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유적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득염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9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서 "미륵사지 유산의 지속적인 복원 보존과 사실규명을 위한 종합적 연구, 체계적인 홍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역사유산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주는 '진정성'과 원래의 모습에 얼마나 가깝게 보존되고 복원되었느냐 하는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병목 국립 문화재연구소 과장은 왕궁리 유적의 가치에 대해 "백제말기 매우 계획적인 구성과 목적을 가지고 축조된 고대유적으로서, 자연지세나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입지선정과 공간확보가 이루어진 유적"이라고 평가하며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변 학문간의 연대(공동연구 시스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안승모)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지난 200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네 번째에 해당된다.

전북도와 익산시, 마한·백제문화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익산 백제 왕도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 ▲학술회의 ▲시민교육 ▲홈페이지 개설 ▲홍보책자 및 연구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익산 역사유적지구'는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익산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규명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역사유적지구에는 ▲미륵산성·익산토성 등 관방유적 ▲궁성 하부구조·성곽 등 궁성유적 ▲미륵사·사자사지 등 종교유적 등이 산재해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새만금 산단공사 전북업체 참여 늘듯

## 농어촌公, 입찰 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새만금산업단지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었던 한국 농어촌공사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을 개정해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은 새만금산업단지공사에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6일자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이번 PQ기준 개정은 지난 10월 22일 국가계약 법령 및 회계 예규가 개정돼 발주기관에서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45점에서 40점으로 낮추는 대신 평가항목에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도를 별도로 신설하고 5점을 부여했다.

또 다른 일반공사는 PQ심사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입찰 적격자로 선정되지만, 새만금산단의 경우 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입찰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수급일 경우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시공비율에 따라 산정해 합산 평가하게 되어 있지만, 새만금산단은 예외적으로 전북지역 업체를 35% 이상 참여시키는 업체에 대해 시공비율과 상관없이 시공실적 전부를 인정해 주도록 해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치호 단장은 "단일공정의 임의적인 공사분할 발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와 기간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229억 이상 국제입찰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LH본사 유치위해 힘 모읍시다"

## 비대위, 10일 전주시청 광장서 궐기대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를 위한 전북 범도민 궐기대회가 10일 전주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LH 본사 유치추진 전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4일 열기로 했던 궐기대회를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무기한 연기했지만 정부의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김완주 전북지사를 비롯 도 출신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민간단체, 마을 통·이장 등 6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궐기대회 이후 전주시청~오거리광장~옛 전북도청 앞까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당초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각각 이전하기로 계획됐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양측이 '일괄이전'과 '분산 배치'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임병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LH 본사유치를 위한 도민의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반드시 전북 몫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블루베리〉

〈참죽열매〉

# "블루베리·참죽 경쟁력 있다"

## 순창농기센터 실증시험 평가

순창군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작목발굴과 소득작목 실증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일 구림면 월정리 소득개발시험포에서 강인형 군수를 비롯해 학습단체 회원,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 희망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증시험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센터는 시험포 부지 17.9ha에 지역특성에 맞는 33종의 품목을 입식하고 블루베리·복분자·오미자·참죽 등 17개 작목·19개 과제에 대한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시험 결과 블루베리와 참죽은 단위당 생산성·상품성을 높일 경우 지역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대표작목을 중심으로 시험포를 운영하고, 선진농업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판소리 '김주열 열사가' 남원시, 제작 발표회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남원 출신 김주열 열사(1944~1960)가 판소리 작품으로 부활했다.

남원시는 9일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명창 이난초 선생의 열창으로 창작 판소리 '김주열 열사가'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해 '민주횃불! 김주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데 이어 올해 열사 서거 50주년을 기념해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6개월여의 제작과정을 거쳐 창작 판소리를 완성했다.

이번 창작 판소리는 ▲열사의 출생과 성장 ▲당시의 시대적 상황 ▲3·15의거와 열사의 주검 ▲4·19혁명 등으로 구성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의에 항거한 열사의 의로운 정신을 구성진 판소리로 되살려냈다"며 "민주역사 발전과정을 가슴 울리는 판소리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원광대병원 원갤러리 31일까지 송년 기획전

원광대학교병원 1층에 자리한 원갤러리가 3주년을 맞아 7일부터 31일까지 송년 기획초대전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이성재·고상준·조영철·박상규·정해춘·박천복 등 중견 서양화가와 김승학·김영곤·김학곤·문재성 등 한국화가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원 갤러리는 한 달에 한차례 작품을 교체, 전시하는 등 지역의 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光州日報 전북취재본부**

| | |
|---|---|
| 군산 박금석 본부장 | ☎467-2500 |
| 전주·김제·부안 강철수 국장 | ☎467-2833 |
| 정읍 박기섭 국장 | ☎ 531-5544 |
| 익산 류정영 부국장 | ☎ 835-3133 |
| 고창 조종옥 부장 | ☎ 561-5900 |
| 순창 이동희 부장 | ☎ 653-0444 |
| 남원 백 선 차장 | ☎ 633-9911 |
| 임실 서은종 기자 | ☎ 653-0702 |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접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투자가치 좋음 매도 3억8천
- 금남로4가 8층건물 상업지 대지776㎡(235평) 건평 862평 경매 감정가 31억6천 사옥임대업·요양시설등 적합 14억
- 금남로5가 대지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4억8천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가 3억천 매도 2억4천
- 마륵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회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
- 원룸 건물 광주역앞 대지 108 건평 383평 감정 11억 8천 대출2억 5천전세 9천 월 650 매도 6억7천
- 광산구 신촌동 그린벨트 산과 밭 3470평 공시지가 1억8천 매도1억5백
- 중흥동 대지104 건평300 대출3억5천 매도6억7천
- 금남로5가 여관 대지111 건평300 객실26 공시지가 4억8천 매도5억2천

■매도·교환
- 용봉동 전남대후문 고시원, 독서실건물 대지671㎡(203평)건물510평 대출 11억원 수입은 월 2000만원선 땅과 교환가능 매도 20억원
- 두암타운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함평군 해보면 (문장입구) 4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550평 창고·식당·공장등 다용도 1억9300만원
- 생산녹지 창고 등 다용도 광산구 비아 2722평 13억
- 충효동 유실수 있는 답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산녹지 서구 덕흥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천만원
- 학동 상업지역 72평과 주택, 공시지가1억8백. 매도1억3천
-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절. 화순군 도곡면 땅801평. 건평 63평. 실제는 100평. 대출9천만원. 중축해 노인요양원등 복지시설 적합. 3억7천만원
- 전원주택지. 화순 남면 사평리 233평. 경관좋음. 4천만원
-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창고는 1년 사글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원룸건물 화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룸 10개 투룸 3개 쓰리룸 2개 주택있고 전세 1억천 월380 매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투자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관리지역 전 1688평 1억 5백만원. 함께있는 국유지 2300평도 사용함. 약초재배. 나무식재에 적합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건 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3층. 연면적598.8(181평) 매매가5억.
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근린생활시설 입점.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7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카센타.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상담자 : 010-3616-8698

공장 및 창고 관련 매매 및 임대/컨설팅 전문
- 하남공단/평동공단내 공장 및 창고물건 다량보유. 500평 ~ 4,000평.
- 소촌공단/ 첨단공업단지내 물건 200평~1500평 규모
- 나주/장성/담양 농공단지 및 인접지역내 공장 및 창고용지 물건보유
- 공장/창고 매매 및 임대관련 상담 문의 환영함.
■상담자 : 010-3634-0458

전용 완료된 자연녹지
- 광산구 하남초교앞 자연녹지,창고용지 및 대지,2차선 도로접. 10.192㎡ .3.3㎡당 30만

상가건물 부지
- 구 서부경찰서-MBC방송국 방향 사거리옆 코너변 4차선도로. 준주거용지. 대지.708㎡ 매매가 12억

전원주택 및 농장
-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 487번지 계획관리지역 4516㎡. 임야. 2차선도로접 78m. 매매가 8천만원
■상담자 : 011-627-6093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50평 134평 100평 (다량보유)

첨단지구: 상가건물매도 매도가 5억3천, 9억5천, 10억, 13억, 14억5천, 24억, 31억, 42억, 55억, 60억, 78억(다량보유)

구함:장성 남면, 진원면 농장및 전, 답

구함:첨단산단, 하남산단, 평동산단 공장 및 공장부지

구함: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있음)

첨단지구: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 (다수보유)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 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 15,000평
▶건 물 : 9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 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 2400평(계획관리)
▶건 물 : 580평(동력200k)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 ①500평 ②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건 물 :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 2000평(생산녹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공장 급 매각**
(순이익금 7억)
- 순천시 주암면 기각리 국도변에 접하여 있음
- 고속도로 석곡톨게이트에서 3분거리에 위치
- 대지10,236㎡, 건물1,043㎡
- 유기질비료 생산공장 전기 400kw인입
- 전국8개도 8개대리점 보유
- 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모든 인허가권이전
- 농협중앙회 유기질비료납품 계약
- 매매29억(대출12억포함 금리4%) 매출 년 15억 지출(인건비, 이자, 세금, 전기, 원자재, 부자재, 기타) 8억, 순이익금7억
- 유기질비료 생산부터 판매영업권 모든 것을 전부 이전해드립니다.

※ 계약후 6~10개월간 생산, 판매 기타 모든것을 전수해 드리며 인수기간에 상기수익금과 다를 경우 계약금과 모든비용을 반환해드립니다.

**고시원 급 매각**
- 동명동 조선대학교 근처
- 대지 363㎡ 건물831㎡
- 2인실룸 42개 공실없음
- 관리실 식당 별도 있음
- 수익 1100만원 (평균 월수익 920만원)
- 매매8억8천만 (융자3억9천)포함

동아공인중개사
062-655-6664
011-684-3886